

## 유럽안보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조 명 현

본 논문은 유럽의 안보공동체의 형성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논문이다. 일찌기 유럽통합운동은 Jean Monnet에 의하여 전후 유럽의 경제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주창되었다. 이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EC를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안보차원에서는 NATO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구소련과 Warsaw조약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유럽과 동구공산권이 대치해 왔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전유럽에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독일은 재통일을 이룩하게 되었고, CSCE는 45여년간의 냉전을 종식 시키고 전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범유럽안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EC를 중심으로 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어 유럽의 경제, 정치, 외교국방의 통합을 통하여 유럽연방을 꿈꾸고 유럽 주체적인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NATO와 WEU를 중심으로 한 공동안보체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NATO의 군사적 역할보다 정치적 경제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NATO의 효용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대체로 CSCE는 서구와 동구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범유럽안보협의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집단체제로서 강제기능이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WEU는 서유럽 주체적 안보체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유럽의 안보체제로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NATO는 집단안보체제로서 체계적 조직능력과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냉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NATO가 전유럽의 안보기구로 역할하기에는 미국의 영향력 팽창이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럽의 안보는 현실적으로 CSCE, WEU, NATO의 장점을 살려 취약점을 극복하면서 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I. 영광의 꿈: 유럽공동체

유럽통합운동의 주역은 프랑스인 장 모네(Jean Monnet)라고 볼수 있다. 그는 2차대전중 연합국측의 경제적 협력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으며,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외상과 같이 일을 하면서, 독일이 루우르 지방의 철강과 석탄 산업을 장악하게 되면 또 다시 재무장을 하여 유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독일(서독)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구성하여 공동관리할 것을 제안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했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1952년 8월에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모네’를 의장으로 하는 ECSC가 창설되었다. 또한 그는 “유럽 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 실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유럽경제통합 방안을 3년에 걸쳐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7년 3월 로마회의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Common Market)와 유럽핵에너지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후 EEC는 약칭으로 EC로 불리게 되었다. EC를 통하여 유럽을 단일시장으로 회원국들간에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외무역에 대하여는 동일관세제를 채택하여 대응하는 한편 회원국 상호간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유럽의 경제통합의 기틀이 되었고 나아가 유럽의 정치통합 — 즉 강력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이루어 유럽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되기를 바랬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설립도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서독의 강력한 마르크화를 통제하는 한편, 유럽의 통화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 모네’의 발상이 오늘날 유럽통합(경제, 정치, 유럽의 안보 등)을 위한 이론적, 철학적, 정치사상적 근원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EC는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그리스, 아일랜드)으로 확장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6개 회원을 포함하여 유럽경제지대(EEA: European Economic Area)를 형성하게 된다면 구성인 3억 6천만, GNP 6조 달러, 세계교역량 46%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북미와 태평양 경제권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블록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후 유럽에서는 유럽의 경제적 발전과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련의 공동노력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의 유럽의 통합을 위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1) Leopold Kohr, “The History of the Common Market,”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 (September 1960), pp. 441-454; Jean Monnet, “Economic Integration: New Forms of Partnership,” i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erspectives on Peace, 1910-1960* (New York, 1960), pp. 97-106; John Pinder, *European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Gregory F. Treverton, “The New Europe,” *Foreign Affairs* (1991/92), pp. 94-112; Walter Goldstein, “Europe After Maastricht,” *Foreign Affairs* (Winter 1992/93), 118-132.

## II.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

1991년 12월 오랫동안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갈구하던 유럽국가들이 유럽의 통합을 위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유럽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12개국 EC(European Community)회원국들이 실천해야 할 합의 사항들이다. 그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은 유럽단일통화와 단일시장제도 실시를 위한 유럽경제화폐통합(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실시하고,

둘째, 유럽정치통합(EPU: European Political Union)을 통하여 EC 회원국들의 외교 정책을 조정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유럽의 공동안보를 도모하고,

셋째는 궁극적으로 유럽연방(European Union)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실상 유럽을 하나의 (1)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2)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 (3) 외교/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 합의조약이다. 이것은 전 유럽의 영광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이며 원대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의도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럽연방(European Union) 또는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을 형성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다. 우선 다수의 민족국들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간에는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경제, 정치, 외교, 국방)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인종,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많이 개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통합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유럽영광의 완전한 정치적 연방(the European Political Union)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과정을 통하여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노정되었던 다양한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실제로 유럽연방제도, 단일통화, 빈부국의 참여, 연방의 외교와 안보, 이민문제, 사회복지, 유럽의회 등 유럽통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sup>2)</sup> 하지만 아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럽통합의 성공여부는 유럽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유럽연방 형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같이 하며 유럽통합이 각 국가들이 원하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sup>3)</sup>

2) Newsweek, "At the Crossroads," December 9, 1991.

3) Newsweek, "At the Crossroads," December 9, 1991; Time, "Europe: How Far? How Far?,"

### Ⅲ. 유럽의 고민: 유럽의 안보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유럽안보공동체의 형성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이후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전쟁을 치르면서 일찍이 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생하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발생한 동서냉전도 사실상 유럽중심의 냉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과 평화 그리고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경험과 이론은 충분히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이론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인들은 전체 유럽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유럽의 영광과 영원한 안보를 위하여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의 강력한 유럽안보공동체를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이 동구권에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을 설치하여 공산권을 팽창시키고 유럽의 안전을 위협할 때, 2차대전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동맹(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949)에 의하여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위협을 견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민주화로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면서 국제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국가들이 경제부흥으로 거대한 유럽 경제블럭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럽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

December 9, 1991. 1991년 10월 중순-11월 초순 EC본부 조사기관이 실시한 EC회원국이라는 것이 '좋은가/나쁜가'라는 EC국민여론조사에서 네덜란드 88%/ 3%; 구동독 79%/ 2%; 룩셈부르크 79%/ 3%; 이탈리아 78%/ 4%; 포르투갈 77%/ 2%; 아일랜드 76%/ 8%; 그리스 73%/ 6%; 스페인 73%/ 7%; 벨기에 71%/ 4%; 독일 69%/ 16%; 구서독 66%/ 7%; 프랑스 63%/ 9%; 덴마크 61%/ 20%; 영국 57%/ 15%; EC전체 69%/ 8%로 나타나고 있다. 『시사저널』 “옛영광 되찾자: 유럽연합 탄생” (1992. 1. 2).

유럽통합 시간표: 1992 12월 외교안보정책의 공동결정체 발족; 1993년 1월 유럽단일시장 탄생/ EC역내 국경철패/ 경제 및 통화통합(EMV)과 정치통합(PU) 발효/ EC내에 거주하는 모든 회원국가 EC시민은 거주지의 지방선거와 유럽회의 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가짐; 1994년 1월 통화통합 제2단계 개시/ 중앙은행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창설(단일통화 준비작업 담당); 199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1996년 연방체제를 지향하는 정치통합 협상개시/ 서유럽(WEU)과 유럽연합(EU)의 융합/ 공동국방정책체제 준비; 1996년말 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 유동을 다수결로 의결 예정; 1998년 7월 유럽중앙은행 창설 최종 예정일, 각국통화의 환율 책정(단일통화 대비); 1999년 1월 유럽 단일통화 예쿠(ECU)시행의 최종 예정일.

는 새로운 유럽안보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 11월 파리에서 열렸던 유럽협력안보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45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을 분명히 종식시키고 유럽이 공동으로 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유럽안보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범유럽안보공동체로서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범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경험한 문제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안보문제 그리고 미래 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럽안보공동체의 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 IV. 유럽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문제

##### 1. 역사의 산물: 유럽방위공동체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개념은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새로 등장하게 된 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마셜 플랜(Mashall Plan) 통하여 전쟁으로 쇠잔해진 유럽국가들의 부흥사업에 치중하는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자조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유럽방위공동체와 같은 것을 창설하여 유럽방위에 참여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독일문제”는 이러한 공동노력을 형성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다. 과거에 독일의 침략을 받아 온 국가 특히 프랑스는 강력한 독일의 출현과 재무장하는 독일을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 슈망 외상에 의하여 “슈망프랜”으로 시작된 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 형성은 사실상 독일을 초국가적 공동체(spranational community)를 통하여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프랑스 수상 르네 프레븐(René Plevén)이 1950년 10월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를 제안한 것도 독일의 독자적 군단을 창설하여 NATO에 참가시키기 보다는 “유럽방위공동체” 통제하에 독일군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유럽방위공동체”라는 초국가적 장치를 통하여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sup>4)</sup> 유럽공동체 개념은 유럽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적 협력을 도모하여 유럽

4) Roger Hilsam, 1959, “NATO: The Developong Strategic Context,” in Klaus Knorr, ed. *NATO and American Security* Princeton, p. 18; Alexander DeConde 1971, (2nd ed.) *A History of American Foreign Policy*, Charles Scribner’s Sons, pp. 766-781; Andrew and Frances Boyed 1949, *Western Union: A Study of the Trend Toward European Unity* Washington, p. 123.

문화권의 결속과 강력한 유럽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유럽방위공동체 개념은 냉전시기에 소련을 견제하고, 역내에 있어서 독일을 견제하며, 유럽방위에 있어서 유럽의 군사력을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다목적 전략으로 창출된 개념이었다. 이러한 논리와 이론은 아직도 유럽의 국제정치와 안보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 2. 새로운 안보환경. 탈냉전 화해협력시대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국제화해협력체제가 등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지배해왔던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간의 문제해결에 있어 화해와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분명히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동구 공산주의 위성국가들의 몰락과 민주화의 개혁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그들 체제의 “제도적 구조”에 연유된 것이며 이 “제도적 구조”는 외적 및 내적 도전에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sup>5)</sup> 다시 말해서 이는 동서냉전 속에서 지나친 군비경쟁으로 국가재정이 효과적으로 국민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발전에 활용되지 못했고, 국가안보를 핑계로 독재와 경직된 관료적 지배로 사회의 발전적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새로 등장하게 된 탈냉전 국제화해협력체제의 성격과 기본행위원칙은 대체로 (1) 단일 - 다극체제, (2) 지위정치, (3) 상호의존, (4) 안보공동체모색, (5) 국제기구의 역할강화, (6) 지역협력주의의 대두로 특징지어 볼 수 있다.<sup>6)</sup> 이러한 국제체제의 성격에 따라 세계의 평화와 질서유지는 미국과 함께 다극을 이루고 있는 신초강대국(EC, 일본, 독일, CIS)들의 상호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sup>7)</sup> 냉전과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사회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와

5) B. Kaminski, 1991,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7; Paul Hollander 1992, *Decline and Discontent Communism and the West Today* (New Brunswick: Transaction, p. 246.

6) 조명현 1994,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과 대응,” 『전략논총』 제 3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pp. 19-82.

7)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LXX, No. 1(1990/91), pp. 23; Richard Rosecrance, “A New Concert of Powers,”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64-82.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심화시켰고 지역내 안전한 교류협력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주의에 입각한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열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WTO)회원국을 포함 유럽의 34개국 정상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념의 대립이 없는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구축하여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을 증진해 가도록 합의의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유럽의 안전과 평화증진, 인권과 민족의 독립보장,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기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환영을 받았다.

이제 유럽은 이러한 신국제질서 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존권력구조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구조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이 개재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첫째, 미국은 냉전종식과 더불어 이제는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냉전시기에 지나치게 팽창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고 군비절감정책을 펴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침체된 미국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국제적 역할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둘째, 특히 2차 대전 이후 NATO의 보호를 받아 온 서유럽인들은 NATO의 역할 약화를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안전과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국의 대유럽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안보를 탈피하고 유럽의 독자적 안보구상과 안보의 “유럽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구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 화해협력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가장 역사적인 이변이었다. 서독의 경제부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유럽에서 또 다시 독일을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이에 유럽인들은 통일된 강력한 독일의 부상에 새로운 우려를 느끼게 되었다.

넷째, EC를 근간으로 경제적 결속과 협력을 통하여 유럽의 경제부흥을 이루어내는 데 비교적 성공을 했고 유럽이 하나의 강력한 경제블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경제블럭을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과 공동외교정책을 취하면서 EC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향상으로 막강한 유럽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과연 EC가 유럽을 축으로 하는 막강한 블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주화로 인한 바르샤바조약기

구의 해체로 동서냉전구조가 허물어졌으므로 이제 유럽은 전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유럽안보체제의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 V. 유럽의 선택: 유럽안보공동체

냉전종식과 더불어 새로 출범한 신국제질서와 화해협력체제 속에서 이상과 같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제기된 유럽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통일 이후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독일에 대한 주변 유럽국가들의 감정은 편안하지가 않다. 과거 전통적으로 독·불간의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어 왔고, 1,2차 세계대전이 강력한 독일에 의하여 야기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침략을 받은 유럽국가들은 강력한 독일의 등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 탈냉전 이후 신국제질서 속에서 유럽의 동, 서, 남, 북부 지역이 제각기 정치, 사회, 경제, 국제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통일된 독일의 행보는 유럽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유럽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조약 비준으로 EC유럽공동체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6개국이 포함되는 EEA는 국내총생산고와 국제무역거래량에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무역블럭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인종, 문화, 정치, 종교 및 경제수준 등 다양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통합하는 “European Political Union” 이나 또는 “The United States of Europe”을 형성하는 데는 난관이 많다. 더구나 유럽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럽안보체제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up>8)</sup> 더욱이 구소련의 몰락과 공산권의 해체로 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안보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범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8) 통합이론자들은 안보공동체는 경제교류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이루어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political integration)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에 대한 태도적 통합(attitudinal integration)이 이루어졌을 때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Michael Haas, “Intern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Chandler Publishing 1974, pp. 203-228; Kenneth A. Dahlberg, “Regional Integration: Neo-functional versus a Configurative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24, pp. 122-128.



유럽안보공동체 또는 협력체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에 의한 유럽통합의 범위는 회원국들의 증가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동안보체의 성격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현재까지의 서부유럽의 경험에 비추어서 유럽안보체제는 세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체제, 둘째는 EC와 서유럽동맹(WEU: Western Europe Union)을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체제, 셋째는 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체제가 그것이다.

## 1. 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체제

### 1) NATO의 등장배경

NATO는 냉전시대에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워싱턴에 12개국(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미국) 외무부장관들이 모여 조인된 미국중심의 유럽방위기구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하여 유럽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빠른 경제회복과 공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국가들의 결속과 뭉쳐진 유럽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전후 미국은 민족주의의 갈등과 전쟁문제를 초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유럽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의 창설이 미국외교정책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NATO”와 그리고 “European Defense Community” “Western European Union”이란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유럽방위공동체와 긴밀한 협조와 동맹관계를 통해서 함께 유럽방위를 도모하려 했다.

### 2) NATO에 대한 인식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 목적은 유럽의 공동방위에 있다. 조약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이에 조약회원국들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sup>9)</sup> 그러나 1956년 이집트 나세르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에즈운하 운영과 중동지역에 중대한 국익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하려 했고 미국은 평화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다. 소련도 대체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9) John C. Campell 1949, *The United States in World Affairs, 1948-1949*, New York, pp. 587-591.

수에즈운하로 파병을 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는 불명예스런 후퇴를 하게 되었고 미국은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NATO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했다.<sup>10)</sup> 수에즈운하 사건으로 미국과 영-불간에 빚은 갈등은 북대서양기구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Sputnik)” 인공위성발사 성공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탁월한 기술에 바탕을 둔 군사력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에게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때마침 발표한 미국의 유럽 주둔군을 미국의 경제능력에 걸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발표와 미국의 유연방위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과 유럽다국적핵군(MLF: Multilateral nuclear force) 창설에 대한 이견은 소련의 장거리 미사일핵공격에 미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럽방위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했고, 게다가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유럽안보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sup>11)</sup>

이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프랑스 드골은 프랑스의 자주외교, 자주국방, 핵무기 개발, 그리고 1966년 NATO의 통합군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독자적으로 프랑스의 유럽방위계획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드골의 정책은 대미의존적 외교와 국방정책에 일대 충격을 주었으며 유럽중심의 방위구상과 “유럽주의”를 재고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 3) NATO의 재조직화

오늘날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시대에 냉전의 산물인 방위체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막강한 핵을 보유한 러시아가 존재하고 있고 동구권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독일의 강대국으로 등장을 생각할 때 유럽의 안보를 위하여 NATO의 역할이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세력균형을 바래기 때문에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안보에 대한 NATO의 역할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리를 쫓는 미국이 독일통일 이후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독일을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만약 독일이 중부유럽의 강자가 되기 위하여 독단적인 길

10) DeConde, Op. cit., pp. 752-755.

11) Amos A. Jordan and William J. Taylor, J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81, pp. 475-481.

12) Ian M. Cuthbertson and David Robertson 1990, *Enhancing European Security*, London: The Macmillan Press, pp. 107-116.

(Sonderweg)을 선택하게 될 때 독일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NATO에 복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sup>13)</sup> 독일 자신도 이러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통합 추진과 NATO 잔류를 약속하고 있다. 독일 헬무트 콜(Helmut Kohl)수상은 독일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유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일은 실제로 무역흑자 60% 이상을 서유럽에서 얻고 있다.<sup>14)</sup> 미국도 나름대로 유럽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NATO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

소련과 공산권의 붕괴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전쟁 가능성이 감소되고, 군사력 위주의 국제관계가 경제중심의 국제정치로 변천하면서 이제 NATO는 소련과 동구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한 냉전적 산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게 세계평화와 범유럽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은 NATO는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기구가 아니라 공동문화와 공동가치에 바탕을 둔 “도덕적 공동체”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NATO의 성격과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변화는 화해협력시대에 있어서 안전보장은 냉전시대에 군사적 분야에만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NATO는 (1) 탈군사화, (2) 정치적 대화와 협력추구, (3) 상호안보 개념을 수용하면서 상호안전보장체제의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1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NATO이사회에서 “북대서양협력평의회(NACC: The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WTO회원국과 발트공화국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협력을 통하여 범유럽의 안보문제를 해결해간다는 사실상 NATO의 역할증대와 활성화 방안에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1994년 1월 브뤼셀에서 열린 NATO가맹국 수뇌회담에서 NATO의 지속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종래부터 NATO의 기본 목표였던 유럽 전역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에 의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발족을 환영하고 EU의 방위조직으로서 서유럽동맹(WEU: Western European Union)과 제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ATO는 WEU를 유럽의 독자적 안전보장과 방위구상으로 유럽측의 기등을 강화하여 NATO와

13) Pierre Lellouche, “France in Search of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72, No. 2(Spring 1993), pp. 125-131; Daniel Vernet, “The Dilemma of French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4 (October 1992), pp. 657-658; Ronald Tiersky, “France in the New Europe,”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131-133.

14) James Sperling, “German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 War: The Strategy of a Civilian Power in an Uncivil World,” *Arms Control*, Vol. 12, No. 3 (December 1991), pp. 79-90.

WEU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상’을 채택하여 구소련과 동유럽제국에게 NATO가입의 문호를 개방하여 NATO의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서 범유럽과 범대서양적 안보기구로서 역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번 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상’에 서명(1994년 6월 22일)하므로서 유럽단일안보체제 형성과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NATO의 변화를 통하여 NATO를 계속 존속시키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의 지배 내지는 의존을 의미하며 탈냉전 평화협력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추구되는 미국의 “Pax-Americana”정책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sup>15)</sup> 미국은 NATO의 군사적 역할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탈냉전시대에 대유럽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세계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2. WEU(서유럽연합)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공동체

소위 유럽동맹조약이라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면 경제 및 통화통합과 정치통합 그리고 공동외교와 공동방위정책을 추진하여 유럽연합을 이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EC를 중심으로한 유럽협조체제의 구축이며 이를 통하여 EC회원국의 자주와 중요국가이익, 공동가치의 보호, 공동안보, 그리고 유럽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연계하여 서유럽연합(WEU: Western European Union)을 새로운 유럽의 방위기둥(European pillar)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상하고 있다.<sup>16)</sup>

WEU를 유럽의 중심축으로 해서 유럽의 안보방위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첫째, 대미의존을 탈피하고 안보의 유럽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둘째, 핵시대에 세계적 강국(global power)인 미국, 일본 등과 대등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초국가적 “superstate”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 통일된 강력한 독일을 WEU에 묶어 뚝으로써 독·불갈등을 서유럽연합 안에서 해결해 간다는 의미를 지닌다.<sup>17)</sup>

15) David P. Calleo, “The American Role in NATO,”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3 (1) (Autumn 1989), pp. 19-28; Dan Coats, “US Defense Policy and the Emerging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Strategic Review*, 18 (1)(Winter 1990).

16) Alfred Cahen 1989, *The Western European Union and NATO Building a European Defense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Atlantic Solidarity* London: Brassey's, pp. 8-26.

17) Goldstein, Op. cit., p. 122.

WEU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벨기에, 10개 회원국과 3개 준회원국(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터키)과 2개 참관국(덴마크, 아일랜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연합을 바탕으로 독·불통합군이 핵심이 되어 서유럽안보협력체(WEDC: Western European Defense Cooperation)를 형성하여 유럽의 안보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익과 경제, 국제정치와 안보적 입지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992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Mitterrand)과 독일 콜(Kohl)수상이 WEU의 핵심방위군으로써 독·불통합군 창설을 제의했다.<sup>18)</sup> 이에 대하여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중립적 EFTA 국가들은 미국은 유럽의 안보에 중요하며 따라서 NATO의 구조에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미국의 핵패권으로 제공된 “핵우산”은 결국은 버리게 될 것이라며 전통적 유럽주의에 입각한 NATO와는 구별되는 “유럽 방위주체성(European defense identity)”을 주장하고 있다.<sup>19)</sup> 독일은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독일통일 후장차 패권적 독일이 될 아욕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NATO에 잔류하며 NATO의 지속적인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WEU회원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1년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NATO는 유럽의 안보에 긴요하며 유럽공동체의 주요 방위조직체로 존속시킨다는 데 타협적 합의점을 찾아놓고 있다.<sup>20)</sup>

실제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여 공동외교 및 안보공동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럽안보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 같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WEU에는 EC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범유럽적 구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또한 유럽통합군단(Euro-Corps)의 구성에 있어 독·불을 중심으로(룩셈부르크, 벨지움, 스페인 등이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안보문제 의결에 있어 전원합의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가 중심이 되거나 또는 제외될 때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넷째,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공동방위전략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유럽방위체제를 가진다는 것은 유럽의 위상을 높이고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 독자적 안보공동체 형성은 불·독 주도권에 대한 불안조성, 미국과 러시아에 자극, 또 NATO와의 균형을 상실할 위험성도

18) Treverton 1992, Op. cit., p. 10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London: Brassey's, pp. 29-32.

19) *Ibid.*, p. 108, Goldstein, *Op cit.*, p. 127

20) *Time* (December 9, 1991), p. 14.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 3.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본래 1966년 7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부카레스트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자문위원회는 유럽의 안보문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1969년부터는 전유럽회의로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당시 서독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이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당시 소련도 중·소분쟁으로 서방과의 접촉을 필요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CSCE의 골격은 1973년 제네바회담에서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1975년 8월 헬싱키에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 소위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최종의정서 내용은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유럽의 안보원칙으로 주권존중, 무력사용금지, 국경선불가침, 내정불간섭, 인권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등권과 자결권 존중, 신뢰구축과 군축, (2)경제, 과학, 기술의 교류협력과 환경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3)제반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해결노력과 공동협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의정서는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며, 유럽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SCE는 동서냉전의 대립이나 불력과 불력의 대립구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참여국들의 이익과 문제해결을 위한 포럼 형태의 협력기구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공산권이 몰락한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서구의 NATO회원국과 WTO 공산권 회원국을 포함하는 34개국 정상들이 모여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념의 대립이 없는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을 열기 위하여 만장일치의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는 냉전에서 화해협력체제의 신국제질서로 그리고 동서이념대립의 안보에서 범유럽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혁명적 사고의 전환점이었으며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CSCE는 미국과 구소련을 포함한 전유럽국가들이 참여하는 범유럽의 제도적 장치로서, 통일된 독일의 CSCE에 참가로 유럽의 안정적 균형에 기여하면서 CSCE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CSCE는 범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상징적 기구로 등장하고 있다.<sup>20)</sup>

CSCE는 중요기구로 CSCE의회(Parliamentary Assembly)와 유럽안보위원회(ESC:

European Security Council)을 두고 있다. 특히 ESC를 통해서 CSCE의 분쟁예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위기관리, 국제적 중재,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하고 있다. CSCE는 합의와 만장일치 원칙에 입각한 토론과 대화의 장 즉, 범유럽의 대화의 장으로서 유럽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다.

문제가 있다면 CSCE가 자체적인 강제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만장일치제의 운영으로 다양한 구성원간 합의도출이 어렵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스니아 사태에 대하여 CSCS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CSCE가 효율적인 범유럽안보체제가 되려면 효율적 강제수단의 확보와 의사결정방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SCE는 대화와 토론을 위한 장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VI. 결론: 유럽안보공동체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NATO, WEU, CSCE는 각기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전유럽이 갈구하는 유럽안보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WEU를 유럽연합의 충추적 안보공동체로 발전시키로 한 것은 냉전으로 심화된 대미의존안보에서 탈피하고 유럽의 “안보주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나 WEU 회원국간에 공동의교와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중요한 취약점이 되고 있다. 또 WEU의 체질(구성)적 제약성 때문에 동유럽까지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SCE의 경우 서구와 동구, NATO와 바르샤바조약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전유럽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범유럽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은 좋으나 집단안보체제로서 강제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NATO는 집단안보체제로서 가장 체계적인 조직능력과 강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이 흠이다. 또 NATO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팽창으로 쉽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효율적인 안보, 분쟁방지,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이들(NATO, WEU, CSCE)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만

21) Simon Duke 1994, *The New European Security Disorder*,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55-267; Vojtech Mastny 1993, "The Helsinki Process and a New Framework of European Security," in Jonathan Story, *The New Europ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pp. 421-442.

이 가능하다.

NATO가 WEU를 대서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축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유럽의 평화유지에 WEU를 활용하고, 이러한 WEU의 활동에 NATO가 그의 조직과 병력 및 장비제공과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 그리고 WEU가 유럽안보의 주역으로서 역할하기는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NATO와 제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NATO가 군사적 역할보다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증대하고, CSCE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하여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고 또 CSCE가 NATO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서 유럽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국제체제와 신국제질서의 기본행위원칙 — 즉, “상호의존”, “저위정치”, “상호안보”, “지역협력주의” — 에 충실하게 부합되는 것이다.

## The Formation of European Security Community: The Possibility and Its Limits

Myung-Hyun Cho

This is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he so-called European Security community and its limits. The Idea of the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 was advocated by Jean Monnet for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intaining of peace in Europe immediately after WWII. In the same logic,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European Economic Community, but military-security perspective, they have long confronted through NATO and Warsaw Treaty Organization. The former is the allied institution on which western European countries depended thei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nd the later is the socialist alliance through which the old USSR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d pursued their national security.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old USSR and the democratizatio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 new Europea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political order have emerged. First of all, Germany was reunified. CSC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nding the era of the cold war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almost 45 years since WWII, and has emerged as the pan-European security community for the security and peace of the entire Europe.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Maastricht Treaty of 1991, the member-states of EC have agre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of Europe by means of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defense integration. They thought such a European political union would function as a common European defense system. However, each member-states of EC has different interests and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ormation of a common European security community as well as the roles and functions of WEU and NATO. The United States considers yet NATO will be an appropriate institution, if it expands its economic and political roles rather than the military role, even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and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s.

Generally speaking, it is a great advantage that CSCE has encompassed all the countries of western and eastern Europe, whereas its weakness is the lack of forcible means as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WEU may be meaningful in that it is europeanized and will function as an European security system, but it has limits in playing the role of the entire European security system. Although NATO has a strong organization and military power, but since it is the by-product of Cold War the expansion of influence of NATO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old USSR and the socialist camp will be misunderstood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erefore, it is a best alternative that by encouraging the advantageous points of CSCE, WEU, and NATO and complementing each weakness of others, these organizations pursue th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security and peace.

조명현,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궁동 220

Tel : 042-821-5851(O), 042-623-2262(H)